

「2018 품격 높고 올림이 있는 문화도시 대전에 취하다」 행사[안] -사랑과 나눔이 있는 이웃사랑 국제교류 I

◇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은 뜨는 별

* 베트남 : 최근 문재인 대통령 2회 방문('17.11, ' 18.3), 한-베수교 2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한국과 교역 1위, 투자 1위, 인적교류 1위, 개발협력 1위의 주요국가

◇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절실

*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제11차 총회, 대전시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에서 열림 ('18.10)

◇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국제교류 I

* 대전광역시내 비영리민간단체인 드림장애인인권센터 주최 공익활동 행사 & 베트남 장애인 연주자 초청 콜라보레이션 참여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인식개선 오늘이 주관하는 행사임

1 행사개요

- 신체적 약점에 굴하지 않고(도전정신), 자기 주도적(리더십)으로 개인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한 실천적 역량의 모범이 되는 베트남 두분*을 한국에 초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연을 통한 양국의 우호 증진

* ① 빈(Vinh) : 빈증성 히엡즈영센터(보육원) 설립자, 한손 기타 및 하모니카 연주자,
② 폭(Phuc) : 호치민 시각장애인센터장, 시각장애인 피아노 연주자

- 공연 및 방문 일정

- 일시 : '18.10.08(월) 11:00 ~ 13:00

- 장소 :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서의필홀

- 주최 : 비영리민간단체 드림장애인인권센터

- 주관 :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인식개선 오늘

- 후원 : 한남대학교 (미정) 케이엔케이, KISTI 슈퍼콤, 청양구기자 (미정)

일 자	주요내용	비 고
10:00 ~ 10:50	리허설	
11:00 ~ 12:15	공연	음향장비 셋팅, 영상기록
12:15 ~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소개 • 식사 •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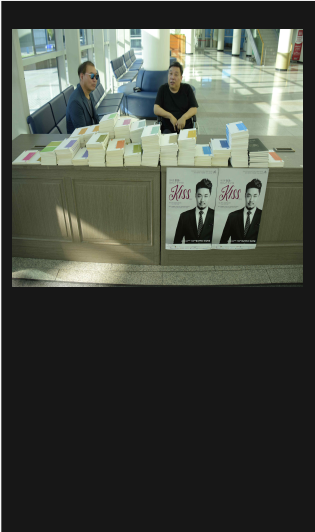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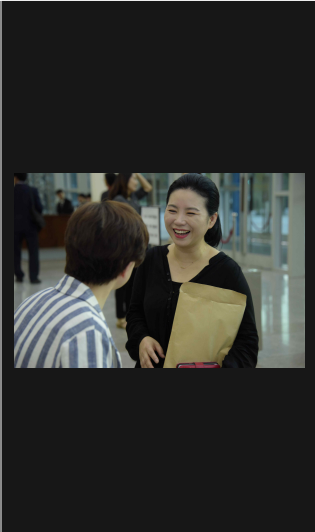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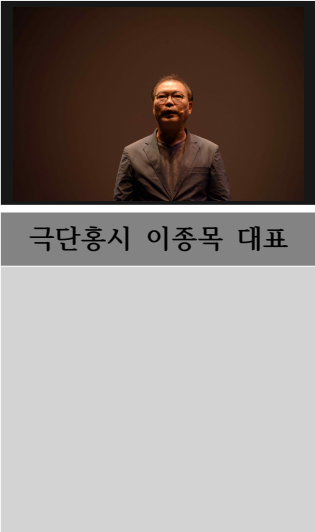

2 협의사항

- 장소사용, 식대, 홍보(현수막, 보도자료), 보호자 참여, 주최 · 주관 · 후원
- 행사참여 관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위문품 전달
- 티타임, 위문품, 자원봉사 등

< 참고 1 > **공익활동 참여 예술인, 연주자 소개자료**

『모성의 만다라』는 박재홍 시인의 시집으로 어머니 49재 동안에 62편의 시를 완성하여 다시 희곡으로 각색하여 쓴 작품임. 박지영시인은 드림장애인인권센터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행사전체를 기획하였음. 극단 흥시 대표 이종목과 신정임 배우가 연출과 연기를 맡아 열연한 작품으로 전국최초 詩劇(시극)으로 올린 초연 작품임. 보기 드문 작품성으로 작곡가 강선하와 시온성이 참여하여 희곡 배경음악 무대상영까지 일관된 하나의 주제로 완성한 작품임. 특히 시와 희곡을 쓴 박재홍 시인은 지체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임.

< 공연 1 : 시극 - 희곡 박재홍 기획 박지영 시극 이종목 · 신정임 >

		 <p>극단흥시 이종목 대표</p>	
<p>左이종목右박재홍</p>	<p>박지영 상임이사</p>	<p>연극인 신정임</p>	<p>작곡가 강선하 시온성</p>

< 공연 2 : 시 어은공 오국현선생, 번역 오왕근교수, 작곡가 김권섭, 작곡가 정수화, 소프라노 조용미, 바리톤 여진옥, 기타리스트 조상구, 독창 최서연(발달장애1급)>

			
<p>번역: 오왕근</p>	<p>작곡가 김권섭</p>	<p>작곡가 정수화</p>	<p>소프라노 조용미</p>
		<p>어은공 오국현 선생은 기호문학의 근간이며 4세9효 가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처 漁隱遺稿(어은유고) 시 오국현선생</p>	
<p>바리톤 여진옥</p>	<p>피아노박지혜 독창최서연</p>	<p>시 오국현선생</p>	<p>기타리스트 조상구</p>

2006년 11월 14일은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에서 漁隱(어은)선생 탄신 40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하여 公(공)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 선양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예학의 태두인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고,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과 교우한 학덕 높은 선비이자 호서출신의 기호학맥이면서도 중년 이후에는 경상도 단성에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함으로서 호서와 영남을 잇는 학풍과 학맥을 형성하였습니다.

2018년 금번 공연을 위하여 참석한 9대손 오왕근 교수님은 어은공의 후손으로 드림 장애인인권센터와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인식개선 오늘』이 어은유고집에서 선택한 정 죽, 사향, 옥천사를 오왕근 교수님의 번역으로 김권섭 작곡가와 정수화 작곡가의 곡을 의뢰하여 가곡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어 소프라노 조용미 바리톤 여진욱 피아노 박지혜의 참여로 창작곡으로 발표하였고, 12년만에 한남대학교에서 사회 공익활동의 국제교류 일환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되물음이 있는 의미있는 기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에는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 예술감독이자(사단법인)대전기타 예술원 이사장인 기타리스트 조상구교수의 참여로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며 발달장애인 최서연(22)씨의 독창으로 넬라판타지아를 공연에 선보이게 됩니다. 관객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50분과 한남대학교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직원 및 학생들을 50분을 초청, 공연과 식사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참고 2 >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행사] 11:00 ~ 13:00 <2018품격높고 울림이 있는 문화도시 대전에 취하다>					
구분	항목	시간	주요내용	비고	
내빈소개	행사안내 내빈입장	11:00~ 11:01	안내 및 내빈착석 안내	사회자 곽성열	핸드1
공연 (60분)	대표인사말 개회선언	11:02~ 11:05	장애인인식개선 오늘 박재홍 인사말 작곡가의 말 (김권섭, 정수화)	사회자	핸드1
	축사	11:06 11:10	전 공주대학교 오왕근 대학원장	사회자	핸드1
	시와 劇	11:11 ~11:30	- 시와 극 ● 모성의 만다라 (박재홍 시 강선하 작곡) - (MR) 新금강별곡 (박재홍 시 시은성 작곡) - acter / 극단홍시 대표 이종목 · 신정임	사회자	핀2 MR
	시와 소리	11:31 ~11:45	- 시와 소리 ● 사향(어은공오국현 시 정수화 작곡 오왕근 번역) ● 정죽(어은공오국현 시 정수화 작곡 오왕근 번역) ● 옥천사(어은공오국현시 김권섭 작곡 오왕근 번역) 연주/piano박지혜 guitar조상구 노래/soprano조용미baritone여진욱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넬라판타지아 (독창/최서연)	사회자	T2 (핀2)
	시와 소리	11:46 ~11:54	●11월 어느 날 (Leo brouwer) ●탱고 앤 스카이 (Roland Dyens) 연주/ Guitarist 조상구	사회자	T1
	초청공연	11:55 ~12:11	1) 기타 솔로 두오이 다 부은 - Độc tấu guitar Tuổi đã buồn (5:09) 2) 기타와 하모니카 합주 -Hoà tấu guitar và harmonica Diễm xưa (5:29) 1) 왜- Why(Bi Rain) (4:11) (KTV:폴하우스 주제곡)	사회자	T2 (핀1)
폐회		12:12 ~12:15	단체사진 촬영 및 관객인사		

< 연주자 2 : 푸크(Phuc) >

베트남 사오마이 시각장애인센터 푸크 센터장은 9살이 되던 해, 지뢰 사고로 두 눈을 잃었다. 이 후, 호치민의 한 맹학교에 들어가 점자를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최고 국립대학인 호치민대학에 들어가 English linguistics(영어 언어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푸크 센터장은 기타, 피아노, 그리고 베트남 전통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공 음악학교를 거쳐 2000년도부터는 직접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해 봉상맹학교의 컴퓨터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다. Sao Mai 센터에서 15년 넘게 교육자로 활동하며, 이사를 역임했었고, 현재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ON-NET (the Overbrook-Nippon Network on Education Technology)와 ICEVI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로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Sao Mai Center는 2001년 만들어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와 음악 교육을 제공하며,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사용법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참고 2 > 베트남 사회적 기업가 장애인 연주자 소개자료

베트남 한손의 '빈' 아저씨의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앞을 못 보는 베트남 '푹' 아저씨의 피아노 공연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빈' 아저씨는 공연을 하면서 모은 수익금으로 베트남 초중고 학생 45명과
대학생 8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푹' 아저씨는 베트남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 연주자 1 : 윈 데이 빈(Nguyen The Vinh) >

한 손으로 기타치는 보육원 원장
베트남 빈증성의 '윈 데이 빈'
9살 때 오른팔 잃어 왼손만 가지고 연주



그는 한 손이 아예 없어서 한 손만 가지고 연주하는 '한 손 기타리스트'이다. 오른팔이 어깨 죽지 바로 아랫부분부터 없기 때문에 왼손만 가지고 기타를 친다.
기타리스트는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공연 수익금과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초·중·고·대학생을 가르치는 '해바라기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15세부터 기타를 연주했으니 벌써 경력이 30년이나 된다.

아버지는 그가 4살 때 전쟁 중에 사망했다. 엄마 역시 7살 때 사망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의 소를 키워주고 돈을 받아 살았다. 그러다가 9살 때 소 등에서 떨어졌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대충 치료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그는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호치민 경제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때 오른 팔이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에 의수를 달고 다니기도 했다.

12살 때 같이 살던 삼촌이 어느 날 기타를 가지고 왔다. 집 앞 정원에서 기타 치는 삼촌 모습을 보고 너무 하고 싶었다. 조금 남은 오른팔에 나무를 덧대어 쳐보기도 했다. 기타 칠 때 쓰는 작은 삼각형 플라스틱 조각인 피크(Pick)를 발가락에 끼워 쳐보기도 했다. 3년을 이렇게 가진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너무 슬펐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손으로 치는 것이 안될까?'

데이 빈은 오른팔이 없기 때문에 왼팔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5개 왼손가락 중 일부는 줄을 튕기고, 일부는 줄을 눌러 음정을 잡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왼손을 기타 밑으로 넣고 위로 향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자세가 나온다.

그러나 새끼손가락은 너무 힘이 약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 게다가 손목을 너무 많이 꺾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도 불편했다.

테이 빈은 한 번 더 변화를 줬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엄지와 검지로 기타 줄을 강하고 유연성있게 튕길 수 있다. 중지 · 약지 · 새끼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줄을 눌러주는 임무를 맡는다.

그런데 한 손의 손가락을 두 부분으로 나뉘, 엄지와 검지는 튕기고, 중지 · 약지 · 새끼 손가락은 기타줄을 누르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손가락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게 누르고 세게 치는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1년 넘게 훈련에 몰입했다. 무언가를 좋아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을 가진 테이 빈이다. 기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는 꼭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기타친구가 제대로 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이다. 호치민 다방에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시작했다. 한 손으로 기타 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테이 빈은 매년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방문해서 공연을 갖는다.

그가 2010년 호치민 인근 빈증성에 설립한 보육원은 교사와 직원 7명이 관리한다. 자신이 고아로 자라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학교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 보육원의 설립목적이다. 고아원 이름은 해바라기(선플라워 · sun flower)라는 뜻의 ‘호영즈엉’으로 지었다.



지금 해바라기 보육원에는 장애인 9명을 포함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워 학교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 고아 등 45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8명이다.

테이 빈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식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교육하는 일이다. 바른 자세를 갖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육한다.”고 말했다. 해바라기 보육원은 이미 여러 명의 졸업생들이 해외로 진출했다. 이곳을 나온 대학졸업생들은 미국 1명, 호주 1명 등으로 갔다. 일본으로 간 36명의 졸업생들은 아사히 신문을 배달하면서 숙식비를 직접 벌며 공부한다. 내년에는 졸업생이 6명 나올 것이다. 졸업생들은 취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것이다. 현재 한 달 운영비는 약 8,400달러이다.

< 연주자 2 : 폭(Phuc) >

베트남 사오마이 시각장애인센터 폭 센터장은 9살이 되던 해, 지뢰 사고로 두 눈을 잃었다. 이 후, 호치민의 한 맹학교에 들어가 점자를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최고 국립대학인 호치민대학에 들어가 English linguistics(영어 언어학) 학사를 취득했다.

폭 센터장은 기타, 피아노, 그리고 베트남 전통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공 음악학교를 거쳐 2000년도부터는 직접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해 봉상맹학교의 컴퓨터를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다. Sao Mai 센터에서 15년 넘게 교육자로 활동하며, 이사를 역임했었고, 현재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 ON-NET (the Overbrook-Nippon Network on Education Technology)와 ICEVI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로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ao Mai Center는 2001년 만들어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와 음악 교육을 제공하며,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사용법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